

특성화고 앙트러프러너십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창업멘토링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황보윤*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이형주**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석사

국 문 요 약

우리나라 특성화고는 산업사회의 각 분야에서 종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직업인을 육성하려는 목표로 1998년에 도입되었다. 2010년에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자리 잡은 마이스터고 제도를 도입하여 변화를 시도하였다. 유럽에서의 마이스터고는 창업 성공률이 98%에 이를 정도로 창업의지가 높은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 기관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창업진흥원의 기업가 마인드 확산 교육 비즈쿨(2002년), 한국시민자원봉사회의 특성화고 대상 창업 마인드 확산 경진대회 Be the CEO(2004년), 아산나눔재단과 어썸스쿨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히어로스쿨(2014년) 등이 사례이다. 본 저자도 201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SK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교생 앱 개발경진대회를 직접 운영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앙트러프러너십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앙트러프러너십의 구성요소는 Miller(1983)가 주장한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에 기회인지를 추가하였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창업멘토링이 앙트러프러너십 구성요소와 창업의지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491개(2017년 말) 특성화고등학교 중 지역별로 안배하여 14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서 287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특성화고 학생의 기회인지,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은 모두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회인지, 위험감수성 등 앙트러프러너십 요소와 창업의지 관계에서 창업멘토링의 조절효과는 진취성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멘토링의 조절효과가 진취성에만 국한된 것은 특성화고는 창업보다는 취업 중심의 정책을 운영 중이어서 앙트러프러너십은 높으나 창업의지가 희박한 학생이 많았고, 기존의 창업멘토링 내용이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창업을 가로막는 제도 때문에 멘토링 만으로는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촉발하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창업의지가 높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창업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특성화고가 취업중심의 정책에서 창업친화적인 정책으로 개선하는 데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II. 서론

우리나라 특성화고는 산업사회의 각 분야에서 종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직업인을 육성하려는 목표로 1998년에 도입되었다. 2010년에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자리 잡은 마이스터고 제도를 도입하여 변화를 시도하였다. 유럽에서의 마이스터고는 창업 성공률이 98%에 이를 정도로 창업의지가 높은 학생들

로 구성되었다(천수경, 2009). 우리나라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 기관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창업진흥원의 청소년 비즈쿨은 2002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앙트러프러너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2017년에는 513개 학교(초등학교 169개, 중등학교 120개, 고등학교 186개, 학교밖 교육기관 20개)에서 앙트러프러너십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

* yun88@kookmin.ac.kr

** hrdlee7@naver.com

영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시민사회봉사사회에서는 특성화고 대상으로 창업 마인드 확산을 위한 Be The CEO를 2004년부터 운영하였고, 아산나눔재단과 어썸스쿨에서는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인 히어로스쿨을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청소년 비즈쿨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 비즈쿨 참여 고등학교 186개 중 80%이상(149개)이 특성화고등학교이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참여는 기존 기능인 양성과 기술력 함양이라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교육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 지식기반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계층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천수경, 2009).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인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창업자가 지닌 개인적인 특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들 중에서도 특히 창업의지가 창업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Bird, 1988; 유봉호, 2015; 이재은, 2017). 유봉호(2015)는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창업의지의 선행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Bird, 1988; Krueger and Carsrud, 1933; 박지유·양해술, 2013).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앙트러프러너십을 창업의지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박지유·양해술, 2013; 양준환, 2014; 조준희·김찬중, 2015).

II. 연구 배경

본 저자는 2011년부터 8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와 SK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고등학교 대상의 앱 개발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회는 고등학교 참가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매년 60여개 고등학교에서 1,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2011년 40개교 395명, 2012년 42개교 798명, 2013년 126개교 1,242명, 2014년 101개교 1,432명, 2015년 62개교 1,220명, 2016년 68개교 1,229명, 2017년 85개교 1,293명).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80% 이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대학교 전문가 및 선배 멘토와 협력하여 앱 및 융합 서비스에 대한 개발·디자인·마케팅 교육과 함께 앙트러프러너십과 창업멘토링도 병행하였다. 매년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 앙트

러프러너십 교육시간을 늘리고, 창업팀에게는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창업을 시도하는 학생들은 1~3개에 그쳤다.

본 저자가 경험한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앙트러프러너십 및 창업멘토링 교육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첫째, 특성화고생들의 앙트러프러너십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창업멘토링은 특성화고생들의 앙트러프러너십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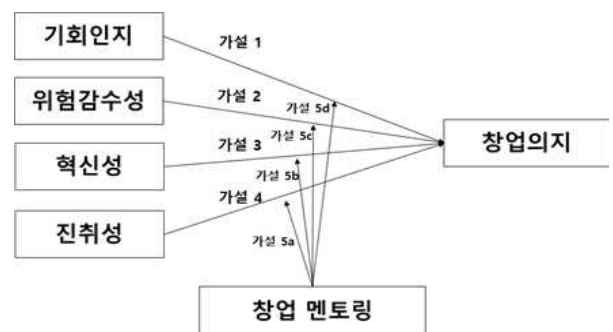
3.1. 연구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앙트러프러너십을 Morris(2013)의 정의를 참고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파악하고, 이 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원을 결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또한, Miller(1983)의 앙트러프러너십 세가지 요소와 기회인지(opportunity recognition)를 더하여 기회인지,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네 가지 요인들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창업멘토링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앙트러프러너십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절 변수로 정하였다.

특성화고 학생의 앙트러프러너십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도식화한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3.2. 연구 표본과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전국 491개(2017년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특성화고등학교 중 ICT 분야 학교 중심으로 지역별로 안배하여 14개 학교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설문조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하였고, 창업멘토링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 3월31일부터 4월4일까지 2차 설문과 창업멘토링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총 322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35부의 설문을 제외 하였고, 287부의 설문을 실증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설문 현황

| 지역 | 학교명 | 인원(명) | 멘토링(명) |
|----|--------------|-------|--------|
| 서울 | 덕수고 | 3 | 3 |
| | 미림여자정보과학고 | 19 | 8 |
| | 서울디지털고 | 4 | 4 |
| | 선린인터넷고 | 56 | 8 |
| | 세명컴퓨터고 | 22 | 5 |
| | 한세사이버보안고 | 10 | 8 |
| 경기 | 양영디지털고 | 25 | 7 |
| | 평촌경영고 | 4 | 4 |
| | 한국디지털미디어고 | 19 | 12 |
| | 한국애니메이션고 | 40 | 3 |
| 충청 |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 30 | 5 |
| 영남 | 대구소프트웨어고 | 18 | 4 |
| | 부일전자고 | 4 | 4 |
| 호남 | 한국게임과학고 | 33 | 15 |
| 계 | | 287 | 90 |

실증 연구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1을 활용하였다. 먼저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통해 측정항목과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확보하였다. 또한 모든 변인 간에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기회인지,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요소 모두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네가지 가설을 모두 채택하였다. 또한, 기회인지와 위험감수성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 창업의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절 회귀분석을 통해 앙트러프러너십 네 가지 요소들(기회인지,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멘토링의 조절 효과는 진취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회귀분석 결과

| 모형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확률 | B에 대한 95.0% 신뢰 구간 | | 공선성 통계량 | | |
|----|---------|-----------|--------|------|-------|-------------------|------|---------|-------|-------|
| | B | 표준오차 | | | | 하한값 | 상한값 | 공차 | VIF | |
| 1 | (상수) | 1.361E-16 | .048 | .000 | 1.000 | -.094 | .094 | | | |
| | 기회인지 | .377 | .048 | .377 | 7.893 | .000 | .283 | .471 | 1.000 | 1.000 |
| | 위험감수성 | .344 | .048 | .344 | 7.189 | .000 | .250 | .438 | 1.000 | 1.000 |
| | 혁신성 | .257 | .048 | .257 | 5.382 | .000 | .163 | .351 | 1.000 | 1.000 |
| | 진취성 | .169 | .048 | .169 | 3.543 | .000 | .075 | .263 | 1.000 | 1.000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앙트러프러너십을 4가지 요소(기회인지,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로 분류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의 앙트러프러너십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국 14개 특성화고 학생들 2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의 기회인지,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은 모두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파악하는데 기회인지 요소가 도움을 주고, 위험감수성은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들을 감내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새로운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개발하려는 혁신성과 다른 학생들과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나가려는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앙트러프러너십 네 가지 요소들(기회인지,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멘토링의 조절 효과는 진취성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멘토링의 조절효과가 진취성에만 국한된 것은 특성화고는 창업보다는 취업 중심의 정책을 운영 중이어서 앙트러프러너십은 높으나 창업의지가 희박한 학생이 많았고, 기존의 창업멘토링 내용이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창업을 가로막는 제도 때문에 멘토링 만으로는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촉발하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창업의지가 높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창업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특성화고가 취업중심의 정책에서 창업친화적인 정책으로 개선하는데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구정화·한진수(2016). 청소년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경제교육학회*
- 이인태·김우제(2015).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서비스경영학회*
- 오해동·최지연·노전표(2016). 개인특성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 이재은·강지원·박정민(2017).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원세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산성학회*

- 천수경·정화영(2009). 전문계 고교 창업교육이 창업인식 및 창업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 Krueger, N. F., & Carsrud, A. L.,(1993).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oopment*, 5(4).